

한때 地球人 이었던

취산(翠山) 박영철 선생님

정 우 일(시인, 동이학교교무부장)

그 산에는 항상 사랑이 넘쳤다
그는 빛나는 산
아름다운 숲이었다
앞에서는 나누는 것의 절정을
몸으로 보여준 생애
뒤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그는 고독한 선지자였다
이제
그가 생애를 걸어 찾아 나섰던
우주가
그를 받아들였다
오늘 그는 우주인이 되어
우리 곁에 나타났다
그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닿아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꿈꾸는 우주심으로
천지만물과 화합하여
여기 그는 대자유인으로
살아 있다
취산